



‘2015 대구 FCI 국제 도그쇼’  
15. 5. 9. - 5. 10

# JUDGE'S EYE

진행 : KKF 국제팀 김현정 과장

한국애견연맹 국제팀은 지난 5월 9일과 10일 양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었던 ‘대구 FCI 국제 도그쇼’의 이틀간의 모든 심사가 종료된 후 올리노 호사가 심사위원을 행사장 내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항상 긍정적이고 유쾌한 호사가 심사위원은 인터뷰가 진행되는 시종일관 활기가 넘쳤다.

## 심사위원님께서 이번이 한국 첫 방문이시죠? 한국의 도그쇼를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틀 간 개최되는 큰 도그쇼에서 심사하게 되어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게다가 행사장이 어찌나 훌륭하였는지요. 호텔은 바로 코 앞에 위치해 있어 심사위원에게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도그쇼 뿐 아니라 많은 애완용품 부스를 둘러 볼 수 있어 더욱 즐거웠습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계속 칭찬한 것처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계획이 스케줄에 맞춰 정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진짜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 보여 주었습니다.

## 그동안 한국을 방문하신 심사위원들께서 쇼 운영에 관해서는 과분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님의 칭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심사하신 견들에 대한 얘기를 해 볼까요?

당연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제가 심사한 견들은 대부분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고,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위생 상 문제가 있는 개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관리 수준이 최고였습니다. 제 본래 직업이 의사다 보니 개의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출진한 개 대부분이 아주 건강한 상태라 기뻐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견종은 세틀랜드 쉽독입니다. 퀄리티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많은 두수에 비례하여 좋은 개들이 많았던 포메라니언 또한 기억에 남는군요.

**KKF 챔피언십 도그쇼 베스트 인 쇼 삼사를 맡으셨는데, 베스트 인 쇼 심사평을 듣고 싶습니다.**

베스트 인 쇼 링 안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단한 영광이겠죠. 특히 이번처럼 출진견들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지요. 이 중에서 가장 돋보이고 생기가 넘치는 견을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를로스 꾸뇨네스 심사위원이 BIG로 올린 비송 프리제를 최종 BIS로 선발하였습니다. 뭐 하나 모자란 것이 없었지만 특히 움직임과 표현력은 최상의 수준이었습니다. 미용 또한 비송의 특징이 살아나도록 잘 되어 있었습니다. 패트리스 심사위원도 다른 비송이긴 하지만 비송프리제를 베스트 인 쇼로 선발했다고 하던데, 한국의 비송 프리제 수준은 정말 놀랍다고 할 수 있네요.

**항상 같은 질문을 심사위원분들께 하는데요, 심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심사위원이라면 당연히 그 무엇보다도 FCI 스탠다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견종을 견종답게 하는 타입이 가장 중요하지요.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건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나요?**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에서는 매년 1월 중 4일 동안 10개가 넘는 도그쇼가 개최되는 서킷쇼를 개최합니다. 제가 이 도그쇼의 운영진이기도 해서 제 도그쇼를 홍보하고 싶네요(웃음). 제가 보기에 한국은 해외 출진자들을 끌어당길만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킷 쇼처럼 많은 도그쇼가 동시에 개최되잖아요. 그런데, 애견과 함께 목을 수 있는 숙박시설 찾기가 많이 힘들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희는 도그쇼를 홍보하면서 개와 함께 숙박이 가능한 호텔 명단을 꼭 포함시키거든요. 한국이 해외에서 더 많은 개들이 참가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거예요.

조언에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루 빨리 출진자분들이 숙박 걱정 없이 도그쇼에 출진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인터뷰에 감사드립니다.



<통역과 함께한 올리노 호사카 심사위원(좌측)>

**올리노 호사카(Mr. Orlino F. Hosaka)**

**FCI/AKU/PCCI 전견종 심사위원**  
前 필리핀켄넬클럽 회장

올리노 호사카 심사위원은 1976년부터 도베르만을 시작으로 애견계에 입문하였으며, 도베르만 외에도 로트바일러, 마리노이즈, 골든 리트리버, 코커 스파니엘, 바셋 하운드, 휘핏, 포메라니언, 프렌치 불독 등을 브리딩하여 수많은 챔피언견을 배출하였다.

1991년 로트바일러로 첫 심사 자격을 승인 받은 이래 현재는 전견종 심사위원으로 필리핀 전역 뿐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심사를 본 경력이 있으며, 1990년부터 필리핀켄넬클럽(PCCI) 이사로 재임 중이며,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또한 PCCI 도그쇼 위원회, 심사위원 자격 위원회 등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지금도 여러 위원회 및 클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본래 직업은 외과 의사이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 자넷 알렌(Ms. Janet Allen) 심사위원 특별 기고문

지난 2012년 6월 도그쇼 심사를 위해 내한하여 정성 어린 심사평을 연맹에 기고하여 회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던 자넷 알렌 심사위원은 이번 '2015 대구 FCI 국제 도그쇼'에 대한 특별 기고문을 보내 왔다.

나는 2015년 5월 9 ~ 10일 한국애견연맹 주최 도그쇼에서 심사하게 되어 무척 기뻐다. 이전에 한국에서 심사한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 다시 초청을 받았을 때 기꺼이 수락하였다.

먼저 한국애견연맹에 대해 말하고 싶다. 한국애견연맹은 프로답게 도그쇼를 완벽하게 운영한다. 도그쇼를 개인의 이득을 위한 쇼가 아니라 혈통건을 장려하는 스포츠로 발전시킨다. 박상우 총재는 한국애견연맹이 세계 애견계에서 독보적이고 찬사를 받는 단체가 되도록 전문기술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이끌어 왔다. 한국의 개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의 목표를 실현시켜주는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옆에 있다. 전월남 사무국장은 혈통서 등록부터 도그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운영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다. 그는 모든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 없이 세심하게 관찰한다. 그리하여 도그쇼 링의 훌륭한 구성, 출진자와 출진견을 위한 적절한 시설, 뛰어난 스텐더드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전경중 심사위원이기도 한 권상국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격려하였다. 김현정 과장은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한국을 방문하면 심사위원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항상 활기가 넘치는 그녀는 모든 열정을 다해 일한다.

내 링의 통역은 심사위원 후보 유은유 지망생이 맡았는데, 그녀는 도그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비송 프리제 브리더이다. 개를 보는 눈이 날카로워서 나중에 분명 훌륭한 심사위원이 될 것이다. 멋진 유머 감각도 갖고 있어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사진 작가인 에디와 그 아내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싶다. 촬영 내내 심사위원과 촬영자들이 지치지 않게 배려하며 개를 어떻게 하면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도그쇼에 출진한 소유주, 핸들러, 브리더는 건강하고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최상의 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내가 심사한 거의 모든 개들이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으며, 잘 훈련되고 미용된 상태로 자신의 견종을 대표했다. 이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브리더부터 핸들러까지 모두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출진자들은 링에서 프로답게 개들을 최상의 상태로 선보였다. 좋은 상력을 획득하지 못한 출진자들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고 예의 바르게 심사위원을 대했다. 또한 다른 출진자들을 존중하며 우승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하였다.

출진견 또한 자신의 견종을 대표하는 훌륭한 상태였다. 즉시 그 견종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쇼에 출진하는 개들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지만, 특히 한국의 개들은 모두 도그쇼 매너가 몸에 배어 있었고, 대부분이 진정으로 쇼를 즐기고 있었다. 미국에 가서 경쟁해도 충분히 좋은 상력을 획득할 개들이 많이 있었다. 좋은 개들을 심사하는 일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이며,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거리는 깨끗하다. 또한 교통은 최고 수준이고, 고대와 현대 건축 모두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다. 음식은 또 어찌나 다 맛있는지! 한국 맥주, 소주, 김치, 갈비, 해물, 면, 한국에서 즐긴 음식 모두가 훌륭하였다. 한국에서 대구로 가는 열차 안에서 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 며칠 더 여행하고 싶을 정도였다.

이제는 내가 심사한 견종에 대해 하나하나 말해볼까 한다.



### 자넷 알렌(Ms. Janet Allen)

**AKC 토이, 논스포팅 전 그룹,  
맨체스터 테리어 심사 가능, 베스트 인 쇼 심사 가능**

자넷 알렌 심사위원은 1970년대부터 브리더와 핸들러로 활동하며 “Tai Yang” 견사호 아래 차우차우를 브리딩하여 BIS, BISS를 비롯한 주요 상력을 획득하였고, 수많은 챔피언견을 배출하였다.

1990년부터 도그쇼 심사를 시작하여 현재 토이와 논 스포팅 그룹 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전역 뿐 아니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중국, 대만 등의 국가에서 바쁜 심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웨스트민스터 도그쇼에서 차우차우, 페키니즈, 포메라니언 등의 견종 심사를 맡기도 하였으며, 토이, 논스포팅 그룹의 스페셜티쇼 심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최근 메디컬 센터 행정사무관에서 은퇴한 후 도그쇼 심사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한국의 멋진 개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 KKF 5그룹

5그룹은 강한 견종이 많아 경쟁이 치열한 그룹이었다. 13마리가 출진한 시베리안 허스키는 전체적으로 좋았으며, 움직임이 정확하였다. 다만, 허리가 너무 긴 허스키가 보이기도 했다. 아메리칸 아키다는 견종의 특징을 잘 지니고 있었으며, 균형감이 좋았고, 시원시원하게 움직였다. 이 견종은 한국에서 아주 훌륭하게 브리딩되었다. 사모예드 또한 강한 견종으로 내가 베스트 오브 브리드로 선정한 사모예드는 탄탄한 체고, 완벽한 움직임, 정확한 골격으로 끝이 가늘어지는 주둥이, 탄력 있는 피모(덥고 습한 기후에서는 정말 관리하기 어려운데 말이다)를 자랑했다. 특히 나를 기쁘게 한 것은 베이비 사모예드 암컷이었다(나중에 베이비 베스트 인 쇼견으로 선정되었다). 진심으로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다! 새하얗고 두터운 피모를 뽐내며, 무대에서 한 번도 발이 잘못 나간 적이 없다. 생기 있고 빛나는 눈동자와 특유의 미소까지!! 만약 나에게 이름을 짓도록 허락한다면, 나는 그녀에게 “카리스마”라는 이름을 붙일 것이다.

61마리가 출진한 포메라니언은 출진 두수뿐 아니라 뛰어난 수준에서도 이 그룹을 압도했다. 모든 클래스가 훌륭한 수준이었다. 적당한 길이의 다리, 높이 올라간 꼬리, 짧은 주둥이(머리에서 비율은 1/3에서 3/2까지이며 너무 짧은 베이비 페이스여서 안 된다), 둥글지 않고 어두운 아몬드 모양의 눈, 거친 상모가 있는 올바른 이중모를 겸비하고 균형이 잘 잡힌 포메라니언을 선발하였다. 몇몇 출진자들은 과도하게 미용을 하거나, 미용이 깔끔하지 않거나, 미용 가위 자국이 있거나(미용 칼이나 숄가위를 사용하길 바란다.), 마치 푸들 같은 모양이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최종 우승자는 내가 그동안 마음 속에 아름다운 포메라니언이라고 그려 놓은 이미지와 일치했다. 짧은 등에 풍성한 피모를 가졌으며, 생기가 넘치고 민첩할 뿐 아니라 충분한 추진력으로 쇼 장을 누볐다.

## KKF 3그룹

3그룹에서는 14두나 출진한 베들링턴 테리어가 나를 놀라게 했다. 미국에서도 스페셜티쇼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많은 베들링턴 테리어를 본 적이 없다. 대부분의 베들링턴 테리어의 머리는 올바른 형태였다. 가슴이 좀 더 깊었으면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톱라인이 허리를 넘어 아치형이기보다는 로치형으로 둥근 경우도 있었다. 피모는 좋았으며, 특히 표현력과 기질이 스탠다드에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런 희귀한 견종을 훌륭하게 브리딩한 한국의 브리더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노퍽 테리어 베이비는 나를 아주 기쁘게 했으며, 더 성장하면 분명 우수한 상력을 받을 것이다.



## KKF 4그룹

4그룹에서는 아쉽게도 롱 헤어드 닥스훈트 단 1두만 출진하였으나, 붉은 색 컬러가 아름다웠으며, 피모의 상태도 아주 좋았다.

## KKF 8그룹

아주 훌륭한 잉글리쉬 스프링거 스파니엘 2 마리가 출진하였다. 이들은 미국 스타일이었으며, 성격은 아주 아름다운 피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미용도 훌륭하였다. 베이비는 균형이 아주 잘 잡혔으며, 어깨의 옆모습 또한 좋았다. 좀 더 성장하고 피모가 더 자란다면 좋은 상력을 획득할 것이다. 아메리칸 코커 스파니엘은 19두나 출진했는데 사이즈가 좀 크거나 미용 면에서 아쉬운 개가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민한 표정, 둥근 형태의 두개골, 미용이 잘 되어 있는 피모 등 스탠다드에 부합하였다.

라브라도 리트리버 또한 14두가 출진하였는데, 스탠다드에 정의된 것보다 더 육중한 개가 많았다. 건장한 체격이라는 말은 절대 부피가 크다는 말이 아니다. 운동선수처럼 강건한 신체를 말하는 것이다. 내가 최종 선정한 암컷은 가슴과 뒷다리 사이가 짧고 강했으며, 골격과 몸통과의 균형이 잘 맞았으며, 두개골이 넓었다.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은 더욱더 장점을 부각시켰다. 골든 리트리버는 다른 견종에 비해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었다. 단지 몇 마리만 좀 긴 균형감이 문제였다. 밋밋한 표정은 얇은 스톱, 기울어진 눈 때문이다. 하지만 뛰어난 상력을 받을 만한 좋은 개들도 많이 있었다.



## KKF 11그룹

11그룹 심사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2년 전에 진도견을 심사했을 때에는 균형감은 아주 좋았으나 스탠다드에서 묘사한 대로 기질이 아직 불안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사한 모든 개의 기질이 아주 안정적이었다. 약간 떨어져서 심사해야 하나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 영민한 표정에 건강한 신체를 자랑했다. 몇 마리는 가슴이 깊지 않고 허리가 길어 호리호리한 편이었으나, 반면에 웅골찬 개도 있었다.

내가 최종 선정한 수컷은 붉은 색의 피모를 가진 개였는데, 아주 근육질인 몸에 짧은 등과 깊은 가슴을 갖고 있었다. 우뚝 솟아 있는 귀, 어둡고 아몬드 모양의 눈, 강한 교합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 냈다. 피모는 만지면 부드러웠다.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이었으며 절대 수줍어하지 않았다. 보면 볼수록 기분 좋아지게 했다. 만약 다음 날 이 수컷이 내 베스트 인 쇼 링에 들어왔다면,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을 텐데 아쉬웠다. 나는 이 수컷을 기억하고 싶어 많은 사진을 찍어 놓았다.

## AKU 10그룹

10그룹에는 별로 출진견이 없었다. 아름다운 보르조이는 견종 타입이 우수했으며, 우아한 피모를 자랑했다. 아프간 하운드는 움직임이 탁월했으며, 피모와 미용 상태가 훌륭하였다. 초연한 태도는 이 견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 AKU 9그룹

9그룹 심사는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우수한 견종이 많았으며 또한 엄청난 출진 두수로도 나를 놀라게 했다. 먼저 꼬뽁 드 투레아는 미국에서는 신 견종인데, 움직임과 피모가 탁월했다. 차이나이즈 크레스티드 독 또한 비록 파우더 퍼프가 좀 길기는 했어도 전체적으로 훌륭했고, 쇼맨십이 뛰어났다.

스무스 헤어드의 경우, 사이즈가 적당하고 피모와 피부가 아름다웠으며, 얼굴 표정이 매력적이었다. 베스트 오브 브리드로 선정한 퍼그는 특히 골격이 튼튼했으며, 사각형의 다부진 체형, 둥근 머리, 짝 말린 꼬리가 훌륭하였다. 베스트 오브 브리드로 선발한 파피용도 완벽하게 위치한 귀와 함께 사랑스러운 표정을 연출했다. 스무스 헤어드 치와와 중 몇몇은 사랑스러운 표정이 특히 좋았다. 페키니즈(내 견종이라 심사하는 내내 즐거웠다) 베이비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적당한 가슴, 짧은 허리, 강한 둔부, 강하고 넓은 턱, 어둡고 큰 눈, 평평한 윗 두개골, 올바르게 위치한 귀를 갖추고 있었다. 풍성한 피모에 감축 또한 훌륭했으며, 태도와 움직임 또한 아주 위엄 있고 훌륭했다.

토이 푸들은 17마리가 출진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미용 상태가 매우 훌륭했다. 앞발과 뒷발의 완벽한 각도에서 나오는 추진력, 타원형의 눈, 강한 주둥이에 대해 칭찬하고 싶다. 하지만 좁은 가슴, 긴 허리에 형편없는 착색이 된 개는 피해야 한다. 최종 수상견은 푸들을 더욱 돋보이는 견종으로 만드는 모습과 태도를 갖고 있었다. 19마리가 출진한 프렌치 불독은 설명하기에 좀 복잡한 견종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개가 있는가 하면 여러 문제점을 가진 개도 있었다. 하지만 프렌치 불독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면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흔한 현상이다. 최종 수상견들은 골격이 튼튼했으며, 넓은 가슴, 근육질의 몸통을 가졌다. 또한 머리형도 크고 사각형이었으며, 아래턱 또한 깊고 사각형이었다. 올바른 추진력으로 콤팩트하게 움직였다.



28마리의 롱 헤어드 치와와는 심사하는 내내 재미있었다. 특히 베이비 클래스는 심사하는 데 꽤 힘들었으나 나를 미소 짓게 만들었다. 머리형이 올바른 개가 꽤 많았다. 반짝이는 눈과 함께 올바른 머리형을 가진 개가 많았지만, 반면 골격이 부족하고 움직임이 형편 없는 개도 있었다(앞발이 교차하고 뒷발이 좁아져, 앞으로 나가기 보다는 빨라진다). 꼬리를 높이 치켜 들고, 톱라인은 평평하고, 활발한 표현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피모의 상태 또한 훌륭하여 아름다움을 더해 주었다. 내가 선정한 치와와는 이러한 모든 좋은 특징들만을 갖추고 있었으며, 아직 어린 나이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말티즈는 이 날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견종이었다. 난 말티즈 피모를 만지는 게 정말 좋으며, 말티즈의 실크 같은 완벽한 피모를 만지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날의 출진견들 대부분은 이런 피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양털 같은 피모를 지닌 경우는 없었다. 늑골이 보기 좋게 휘어져 있고, 톱 라인이 평평하며, 사각형의 형태를 가진 말티즈에게 좋은 상력을 수여했다. 이들은 모두 주둥이의 길이가 적당했으며, 검은 눈가에 어둡고 둥근 눈, 약간 둥근 머리를 지니고 있었으며, 피모는 실크 같고 길었으며, 색은 화이트였다. 특히 수컷 2마리와 암컷 한 마리는 엄청난 퀄리티로 인해 눈에 띄었는데, 결국 최종 우승자는 암컷이었다. 그녀는 움직일 때 아우트라인을 아주 잘 유지하였으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피모와 자신만만한 태도는 다시 한 번 그녀를 쳐다보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 이들 모두가 훌륭하였으며, 미국에 가서 경쟁해도 높은 상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말티즈 브리더들은 자신들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나는 많은 브리더와 심사위원들에게 한국 말티즈의 훌륭함에 대해 말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넷 알렌 심사위원이 9그룹 말티즈 견종 심사를 보고 있다.>

34마리가 출진한 비숑 프리제 또한 하이라이트 중 하나이다. 이 아름다운 균형감, 상태, 골격이란! 내가 얼마나 비숑 프리제의 모든 클래스(베이비부터 성견 클래스까지 모두)를 심사하면서 즐거웠는지는 차마 글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베이비는 아직 충분한 피모가 갖춰지지 않았지만, 골격은 이미 훌륭했다. 퍼피는 훌륭하게 성장했다. 성견 조의 수상견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다. 나는 이 견종에서는 특히 얼굴 표정, 평평한 수평면, 어두운 눈과 코가 만들어내는 정삼각형 모양을 집중적으로 본다. 나는 가슴이 충분히 발달되고 약간 길어서 더 쉽게 추진력을 낼 수 있는 콤팩트한 체형을 원한다. 전반적으로 약간 둥글게 파우더 퍼프를 강조하는 미용을 선호한다.



또한 피모는 만지기에 부드럽고 풍부하길 원한다. 챔피언 클래스의 세 마리는 앞에서 내가 말한 이상적인 비송프리제의 좋은 예가 될 것이며 모두 각각의 장점을 갖고 있었다. 암컷 챔피언 1위견은 우아하면서 행복한 표정이 특히 우수했으며, 움직임 때의 아우트라인 또한 훌륭했다. 수컷 챔피언 2위견은 특히 옆모습이 아름다웠으며, 역시 표현력이 우수하였다. 최종 우승견은 수컷 챔피언 1위견이었는데, 누구든지 보는 순간 왜 선정했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튼튼한 체형, 감촉이 좋은 파우더 퍼프 피모는 최고의 장점이었다. 그 뿐 아니라 그는 스탠다드에서 기술한 그대로의 “어두운 눈으로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을 갖고 있었다. 결국 이 날의 베스트 인 쇼견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비록 내가 심사하지는 않았지만 이틀 동안 다른 링의 심사를 지켜보며 아름다운 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중 훌륭한 머리를 가진 도베르만 암컷, 움직임과 피모가 뛰어나고 균형이 잘 잡힌 셰틀랜드 쉽독, 옆 모습이 특히 아름다운 아펜핀셔가 기억에 남는다.

## AKU 베스트 인 쇼

베스트 인 쇼 심사를 하게 된 사실은 큰 영광이었다. 내가 심사해서 올린 견종 뿐 아니라 내가 그동안 존경해 온 명망 있고 경험이 풍부한 국제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견종이 모두 한 자리에서 경쟁하는 자리이다. 콜롬비아의 까를로스 귀뇨네스 심사위원은 골든 리트리버 브리더로 유명할 뿐 아니라 미국에서 평판이 좋기로 유명한 심사위원이다. 호주의 패트리스 요한슨 심사위원은 호주의 로디지안 리지백 탐 브리더이고, 심사 시 특히 골격에 관해 예리한 눈을 가졌다. 필리핀의 올리노 호사가 심사위원은 복서와 도베르만 브리더로 심사 숙고 끝에 최고의 견들을 베스트 인 쇼 링으로 보내 주었다. 일본의 마사미 우류는 자신의 미니어쳐 슈나우저로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미국의 많은 핸들러와 브리더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심사위원이다.

베이비 베스트 인 쇼견으로 사모예드 암컷을 선정하였다. 내가 처음에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말한 그 사모예드 말이다. 내가 이름 붙인 ‘카리스마’를 다시 베스트 인 쇼 링에서 만나서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사모예드 견종 특징의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녀의 골격과 피모는 특히 뛰어났으며, 표정과 기질은 모두가 그녀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이미 경쟁력을 갖춘 쟁쟁한 말티즈와 셰틀랜드 쉽독을 제치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15. 10. AKU 챔피언쉽 도그쇼 BABY BEST IN SHOW 수상견>  
L-ESSEM-RISA OF THE LEE CROSSOVER / 소유자 : 강희규

퍼피 베스트 인 쇼는 포메라니언이 차지했다. 이 작지만 쇼맨십이 뛰어난 포메라니언은 링 안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올린 다리, 짧은 등, 높게 위치한 꼬리, 이중모가 탁월하였다. 3위를 차지한 프렌치 불독은 멋진 아우트라인과 머리를 가졌으며 움직임 또한 탁월하였다. 2위인 라브라도 리트리버 암컷은 링 안에서는 아름다운 움직임을 자랑했고, 들판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체격이 다부졌다.

이 날의 최종 베스트 인 쇼는 비송 프리제를 선정하였다. 이 비송 프리제에 관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다. 다만 하루라도 빨리 이 비송 프리제 사진을 받아서 이 견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을 뿐이다. 내가 존경해 마지 않는 비송 프리제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리차드 보켄프 심사위원에게 빨리 자랑하고 싶다. 이 비송 프리제의 견주, 브리더, 미용사, 핸들러 모두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2위인 포메라니언은 사실 비송 프리제와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견종 스탠다드에서 기술하고 있는 아우트라인과 표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눈에 확 띄게 하는 용모를 갖고 있었다. 3위인 셰틀랜드 쉽독 또한 다른 쇼에서 얼마든지 우승을 차지할 만한 개이다. 특히 지적이면서 부드러운 표정에 작은 귀가 특히 놀라웠으며, 암컷임에도 넓고 근육질인 뒷다리의 움직임을 보는 일은 아주 즐거웠다. 이중모인 피모 또한 미용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완벽함을 이루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이런 완벽한 순간을 만들어 준 박상우 총재를 비롯한 한국애견연맹 임직원 일동, 견주, 브리더, 출진자, 동료 심사위원 여러분들과 멋진 개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끝-



<'15. 5. 10. AKU 챔피언쉽 도그쇼 BEST IN SHOW 수상견>  
DOGNEWS'S G-MY ENDLESS LOVE FCI / 소유자 : 김문주